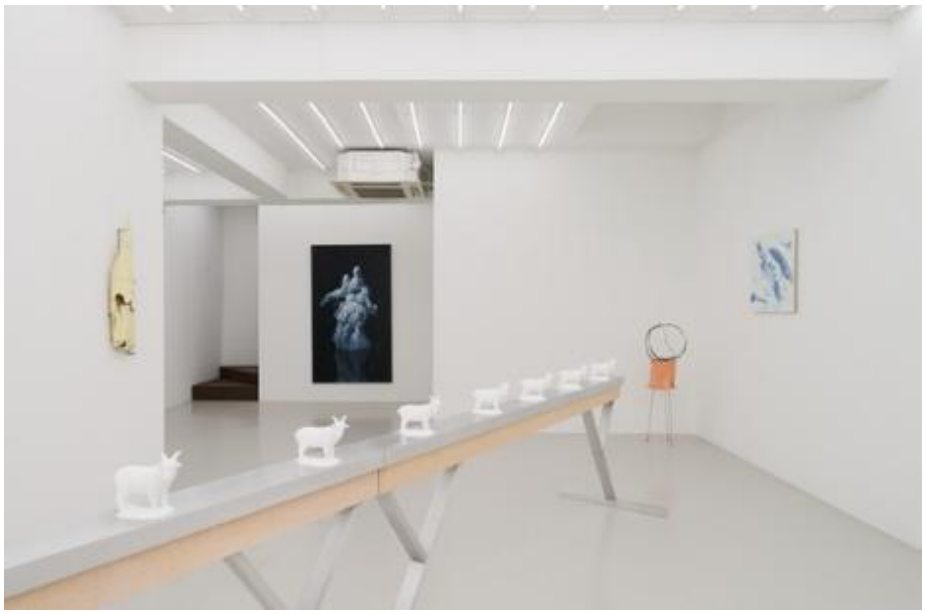
눈밭 속 온기부터 무게로 잰 시간까지… 경계를 잇는 3인전《네트》

2026. 07. 09. | 최수영

이채원·리니아 가드·이의성,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잇다
7월 4일~8월 8일 디스위켄드룸… 스웨덴 신진 작가 리니아 가드 참여



전시 전경/출처: 디스위켄드룸

예술을 손에 쥘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과정'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 서울 한남동 디스위켄드룸이 7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여는 3인전《네트》는 그 물음에서 출발한다. 이채원, 리니아 가드(Linnéa Gad), 이의성 세 작가는 인간과 비인간, 인공물과 자연물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시간이 쌓이고 깎여 나가는 흔적들을 좇는다. 효율과 논리로 재단되는 세상의 이면에서 생성과 소멸의 순환을 긍정하는 시선이 전시 전체를 관통한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재료와 방식으로 같은 질문에 다가선다. 이채원의 회화는 어둠과 고요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생의 온기를 담아낸다. 잔물결 하나 일지 않는 밤바다나 광활한 눈밭처럼 차갑고 비어 보이는 풍경 안에서, 오히려 가장 따뜻한 생명의 흔적을 발견하게 만드는 식이다. 화면 속 하얀 존재들은 서로를 품에 안고 온기를 나누거나 높은 곳에서 주변을 지키며 서로의 안녕을 살핀다. 큐레이터는 이 장면들이 작가가 조심스레 고백해 온 자연을 향한 애정과 무력감, 책임을 되비추는 듯하다고 설명한다.



리니아 가드 Linnéa Gad, So and So, 2026, ceramic, metal, 118 x 49.5 x 25.5 cm/출처:디스위켄드룸



리니아 가드 Linnéa Gad, Sun Trap II, 2025, welded steel, amber glass, 41 x 11.5 x 14 cm/출처:디스위켄드룸

스톡홀름 군도의 해안에서 나고 자란 리니아 가드는 연체동물이 제 분비물을 층층이 쌓아 단단한 껍데기를 만드는 습성에서 작업의 실마리를 얻는다. 그의 조각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형태를 빚은 결과물이라기보다, 조직이 스스로 엉기고 증식하는 과정을 닮은 '상태(status)'에 가깝다. 흙과 금속, 종이, 유리 같은 재료에는 작가가 관찰한 지형의 지질학적 성질과 저마다의 사연이 담긴다. 미국과 유럽을 무대로 활동해 온 스웨덴 신진 작가가 국내 관객과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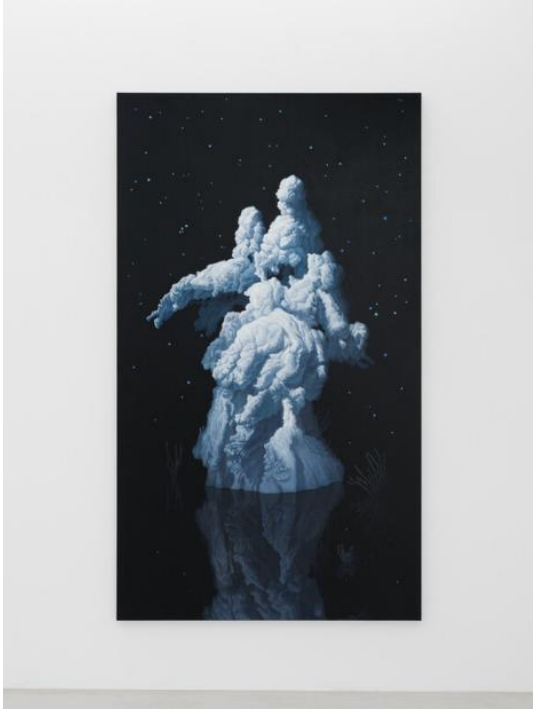
이의성 Uesung Lee, 털 날리는 계절_Cashmere Goat L Shedding Season_Cashmere Goat L, 2026, spray on mirror, aluminum, wood, 64 x 52 x 4 cm/출처:디스위켄드룸



이의성 Uesung Lee, 털 날리는 계절_Goat Shedding Season_Goat, 2026, plaster, aluminum, wood, dimensions variable/ 출처:디스위켄드룸



이채원 Chaewon Lee, 깃 Quill, 2026, oil on canvas, 162 x 112 cm/출처:디스위켄드룸



이채원 Chaewon Lee, 밤의 안부 Night's Regards, 2026, oil, acrylic on canvas, 193.9 x 112 cm/출처:디스위켄드룸

이의성은 개인과 사회를 둘러싼 제도와 원리, 체계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흐름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옮긴다. 그에게 시간은 균질하게 흘러가는 선형의 척도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밀도와 속도가 달라지는 실체다. 소리와 온도, 거리, 무게 같은 구체적 성질로 치환되는 시간은 상대성 이론을 떠올리게 하며, 시장과 효율의 논리로 재단되는 '쓸모'의 문제를 되짚는다.

결국 《네트》라는 제목처럼, 세 작가의 작업은 인간과 자연, 인공과 생명이 촘촘히 얽힌 그물망을 더듬는다. 완결된 결과물보다 지금도 생성되고 스러지는 과정에 눈을 두는 이 전시는, 오프닝 리셉션이 열리는 7월 4일부터 관객을 맞는다.

전시 정보

전시명: 《네트》

작가: 이채원(Chaewon Lee), 리니아 가드(Linnéa Gad), 이의성(Uesung Lee)

기간: 2026년 7월 4일(토) ~ 8월 8일(토)

관람 시간: 수~토 12:00~19:00 (일·월·화, 공휴일 휴관)

장소: 디스위켄드룸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42길 30)

기획: 이유진(디스위켄드룸 큐레이터)

문의: 070-8868-9120

[출처] 데일리아트

(https://www.d-a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76)